

## 박경리 장편소설의 ‘계모’·‘자매’ 유형 변화와

### 그 의미

—『재귀열』, 『은하』, 『김약국의 딸들』,  
『나비와 영경귀』를 중심으로

조윤아\*

1. 들어가는 말
2. 기존 연구 검토
3. 계모의 대응 및 성격의 전환
  - 3-1. 거부하는 계모
  - 3-2. 거부당하는 계모
4. 문제적 관계의 자매 등장
  - 4-1. 조력하는 자매
  - 4-2. 결박하는 자매
5.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박경리의 장편소설에서 ‘계모’와 ‘자매’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고전소설과 신소설에 등장하던 ‘부정적인 계모’의 패턴이 박경리의 장편소설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후기 장편소설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점적으로 분석한 작품은 『재귀열』(1959), 『은하』(1960), 『김약국의 딸들』(1962), 『나비와 영경귀』(1969) 등이다. 『은하』에 등장한 계모는

---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한국의 고전소설이나 신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새롭게 ‘엄마’라는 역할과 지위를 얻었으나 여전히 가정의 구성원 되기를 거부하면서 전처의 딸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악행을 저질러 전처의 딸을 위기에 빠뜨린다. 그러나 『나비와 영경귀』에서 젊은 계모는 오히려 전처의 딸로부터 악의적이고 병적인 괴롭힘을 당한다. 이 계모는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보이는 선한 인물로, 결국 전쟁 중 폭격을 당하여 어린 친딸을 남겨둔 채 죽음에 이르는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한편, 『재귀열』과 『김약국의 딸들』에 등장하는 친자매는 결속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한 인물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력을 자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나비와 영경귀』에서 자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속력을 지닌 관계이다. 이복자매인 이들은 서로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결박함으로써 결국 파국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젊은 계모’를 희생자의 위치에 자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자매 갈등관계를 증폭시키면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다룬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작을 남기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기존에 반복되었던 인물 유형의 변화들이 장편소설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일면을 파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박경리의 소설들, 계모, 친자매, 이복자매, 전처의 딸, 희생자, 패턴, 유형 변화)

## 1. 들어가는 말

소설의 역사에서 ‘계모담’과 ‘자매(형제)담’은 전승과 변형을 거치면서 지속되고 있다. 구전문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이야기 유형은 가족

의 인물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구조이기에 친숙성과 개연성을 담보하여 여전히 흥미롭고 대중적인 서사 모티프로 차용되곤 한다. 때로는 동화의 형태로 다듬어져 확산하면서 사회윤리의 교육에 쓰여 사회적 통념을 낳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전소설과 신소설 가운데 “계모형 가정소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sup>1)</sup> “가정소설은 대중성을 획득하기가 그만큼 용이”한데, “계모에게 학대받는 어린 주인공”이 등장할 경우 그를 향한 연민으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sup>2)</sup> 더욱 대중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른바 ‘배다른 자매(형제)’의 갈등이 요동치면서 서사의 극적인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계모담’과 ‘자매(형제)담’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박경리 소설에서도 이러한 ‘계모’의 등장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박경리는 1926년생으로 독자로서 그런 유형의 소설에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고, 사회적 관습을 반영하다 보니 계모가 등장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또 박경리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러한 가족관계에 주목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경리의 1965년 발표 작품 『환상의 시기』에는 “민이에게는 오빠처럼 젊은 아버지였고 어머니에게는 동생같이 젊은 남편이던 민이 아버지는 당시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딸을 둘이나 낳고 탄살림을 하고 있었다.”<sup>3)</sup>는 부분이 나온다.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고 더

1) 김주리, 『한국근대소설 속 스위트홈의 욕망과 계모의 표상』,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 179쪽.

2) 이원수,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권 1호, 국어교육학회, 1985, 129-130쪽. 이원수는 이 글에서 “여성 독자의 모성본능”을 자극하여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약자의 위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에 대한 분노와 동정은 모성본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 박경리, 『환상의 시기』, 지식산업사, 1980, 24쪽.

이상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다. 다만 이 부분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라는 박경리 개인의 사정과도 흡사하여 『환상의 시기』에 내재해 있는 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4)</sup> 같은 해 연재한 〈신교수의 부인〉(1965)<sup>5)</sup>에도 비슷한 설정이 나온다.

그러나 박경리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한 인물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며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성의 탐구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를 도모한다. 평론가 김치수는 박경리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적어도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변화 양상은 그것이 비록 단순한 길이의 문제일지라도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6)</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인물구성의 미묘한 변화를 밝혀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경리가 발표한 작품들 중 특히 장편소설 중에서 ‘계모’와 ‘전처의 딸’, 그리고 ‘자매’의 인물관계 설정에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4) 박경리는 에세이 『나의 문학적 자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는 “14세 때 네 살 연상인 어머니와 결혼하였으나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을” 하였으므로 박경리가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은 많지 않다. 이 글에 아버지의 성격이라든가 풍모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가 뺨을 맞았던 사건까지 쓰고 있다. 그 일로 작가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음 해 하급생들과 동급생이 되어 공부를 해야 했다고 고백한다. 박경리, 『원주통신』, 지식산업사, 1985, 87-103쪽 참조.

5) 신병구에게는 “배다른 누이동생” 병희가 있다. “병희와 한 어머니를 가진 남동생 병옥은 스물 다섯 살로 신병구와 나이 차이가 있다. “육이오를 전후하여 신병구씨의 어머니와, 병희 병옥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들의 아버지는 훨씬 이전에 기생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박경리, 『영원한 반려』, 지식산업사, 1987, 18쪽 참조. 〈신교수의 부인〉은 『조선일보』에 1965년 11월 23일부터 1966년 9월 13일까지 연재 발표된 이후 1979년 영서각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당시 『영원한 반려』로 제목을 바꾸었다.

6)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8쪽.

이 설정이 어떤 작품에서는 중요한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지만 또 어떤 작품에서는 이것이 크게 소용되지 않아 필연적인 설정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작품들 중 그 설정들이 서사구조에 의미 있는 4개의 작품 『재귀열』(1959),<sup>7)</sup> 『은하』(1960), 『김약국의 딸들』(1962), 『나비와 영경귀』(1969)<sup>8)</sup>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은하』는 주인공의 인물관계에 '계모'가 설정된 『푸른 운하』(1961),<sup>9)</sup> 『파시』(1964)<sup>10)</sup> 등에서 등장하는 '부정적인 계모'<sup>11)</sup>의 전형적인 특성이

- 
- 7) <재귀열>은 월간잡지 『주부생활』에 1959년 2월부터 1960년 4월까지 연재되었다. <재귀열>을 장편소설로 보기도 하고 중편소설로 보기도 하는데, 그 구분에 애매함이 있어 본고는 장편과 단편으로 이분하는 관점에서 이 소설을 장편소설에 포함하였다.
- 8) <죄인들의 숙제>는 『경향신문』에 1969년 5월 24일부터 1970년 4월 30일까지 연재 발표된 이후 1978년 범우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당시 『나비와 영경귀』로 제목을 바꾸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산업사에서 출간한 『나비와 영경귀』를 텍스트로 삼았기에 이하 『나비와 영경귀』로 언급하고자 한다.
- 9) 『푸른 운하』에서 주인공 송은경은 계모와 싸운 후 집을 나와 엄마의 친한 후배인 허찬희를 찾아간다. 찬희가 “짹짹하기 짝이 없는 은경의 계모의 눈을 피해” “어려운 일 있거든 서울”로 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은경은 집에서 “언제까지나 계모와 냉전을 벌이고 있는” 오빠를 걱정하면서도 서울에서 자기 나름의 삶을 찾기 위해 찬희의 도움을 받아 도전한다. 찬희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상국은 “소실을 얻어 아들을 낳고” 살림을 차린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찬희는 은경을 전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외로움을 이겨내려 하고 이 조력자에 의해 은경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한다. 박경리, 『푸른 운하』, 마로니에북스, 2014, 12-14쪽 참조. 주인공이 계모로 인해 집을 나와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한다는 스토리 구조를 보이는 작품이다. 다만 계모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전언이나 후일담에서만 언급되고 있어 본격적인 '계모' 유형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 10) 『파시』에서 주인공 조명화의 계모 '서울댁'은 전처의 딸뿐만 아니라 남편이 구해준 어린 처녀 수옥에게도 악행을 저지르는 최악의 인물이다. 밑수품을 받고 수옥을 팔아넘긴 서울댁은 결국 그 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그래 임자는 그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서로 갈라져야만 속이 시원하겠단 말이지.”라고 “노여운 얼굴로 마누라를 노려”보는 명화의 아버지 조만섭은 딸을 위하여 약혼자 응주와 박의사가 이사한 부산에 딸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통영의 집을 나오게 된 명화는 비록 응주와 결혼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정신병을 앓다 자살한 엄마의 딸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파시』, 마로니에북스, 2013, 33쪽 참조. 『파시』에서 계모는 분명 전

드러나면서 계모의 악행이 주인공 즉 ‘전처의 딸’의 각성과 성취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박경리의 장편소설에서 고전소설이나 신소설에서 반복되어 온 ‘계모’ 설정 패턴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계모’를 보여준 『나비와 엉겅퀴』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비와 엉겅퀴』는 ‘이복자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여 박경리 소설에서 ‘자매’의 관계적 특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분석 대상이 되었다. 주요 여성 등장인물이 자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작품은 이 외에 『재귀열』과 『김약국의 딸들』이 있는데, 이들은 친자매 이면서 서로 다른 인생의 행로를 보여준다. 『나비와 엉겅퀴』보다 박경리의 창작기간 초기 혹은 중기에 발표된 이 두 작품을 대상으로 자매들 각각의 행로보다 자매의 반복되는 관계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2. 기존 연구 검토

박경리 작품에 대한 연구는 대하소설 『토지』를 염두에 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로 나뉜다. 『토지』는 그의 창작기간 후기 작품으로 초기 단편소설 연구나 몇몇 장편소설이 지닌 특성 연구들이 후자에 속한다. 『토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더불어 한 편의 작품을 연구할 때라도 결

---

처의 딸을 보살피거나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거나 방해하는 부정적 인물이다. 명화가 집을 나오고 이후 자신을 옥죄던 주술 같은 대물림의 저주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물의 성숙 혹은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파시』를 본격적인 ‘계모’ 유형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존 연구 검토에서 이루어진다.

국 『토지』와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연구는 전자에 속한다.

김치수에 의하면 박경리의 초기 단편 〈불신시대〉·〈암흑시대〉·〈영주와 고양이〉·〈하루〉 등은 “한 전쟁미망인의 자전적 기록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작품들인데, 이렇듯 “개인적인 불행”을 다룬 단편으로부터 출발한 작가의 세계가 장편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한 가정의 불행으로 확대되고, 『파시』에서는 한 사회의 불행으로 보다 진전되었다가 『시장과 전장』에서는 민족의 비극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이 세 장편소설의 특징은 대하소설 『토지』에서 종합되므로 앞선 장편들이 “『토지』의 준비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sup>12)</sup>

한점돌은 『김약국의 딸들』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을 지배하고 있는 금기의 위반이 가져오는 비극적 종말이라는 “샤머니즘적 운명론”과 그러한 “샤머니즘적 주박이라는 운명론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에 주목한다. 한점돌에 의하면 『김약국의 딸들』은 박경리가 초기 사적 경험에 따른 창작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에 눈을 돌리면서 “삶의 원리로서 샤머니즘을 포착”하여 쓴 작품이며, 이것은 후기 생명사상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 샤머니즘”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는 『토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로써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sup>13)</sup>

박경리의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인 김은경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나비와 영경귀』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체성과 현실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편집적 인물과 분열적 인물로 유형을 구분하면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12)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4쪽, 31쪽.

13) 한점돌,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샤머니즘』, 『현대문학이론연구』 4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5쪽.

초반에 발표된 박경리의 중장편 소설에서는 편집적 인물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다가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점차 분열적 인물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토지』와의 긴밀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하였다.<sup>14)</sup> 김은경이 규정한 ‘분열적 인물’이란 ‘편집적 인물’과는 달리 사회와 ‘접속’하고 ‘정체성을 생성’하는 인물이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 방향과 마찬가지로 김치수, 한점돌, 김은경 역시 박경리의 창작 흐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그의 대표작 『토지』에 드러나 있다는 분석이다. 박경리의 다수의 작품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분명 박경리의 소설 창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그것이 어떤 변화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내고자 하는데, 본 연구도 그와 같은 연구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지혜는 박경리 소설의 “전모에 대한 일관된 의미 이해”를<sup>15)</sup> 하고자 했고 그것을 ‘상호 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다수의 단편과 장편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 후기의 작품으로 <죄인들의 숙제>를 다루었다. 『나비와 엉겅퀴』가 아니라 <죄인들의 숙제>로 신문 연재지면을 이용하여 이 작품을 연구한 것은 조지혜의 석사논문이 유일하다. 그는 이 작품

14)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의 인물 정체성과 현실 대응 양상의 관계』 『영원한 반려』, 『나비와 엉겅퀴』, 『단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1호, 한국현대문학회, 2007, 302쪽.

15) 조지혜,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22쪽. 조지혜는 객관성이 주관성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우위에 놓이는 진리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생기는 작품 세계의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관성이 객관성과 분리될 수 있거나 객관성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객관성이 주관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여기는 주관주의적 입장의 상호주관성 이론”을 통하여 박경리 문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이든 사물이든 상호간에 ‘접촉’, ‘투사’ 등으로써 ‘개체적 주관성들이 구축하는 상호주관적인 ‘실제적 세계 혹은 실상(實相)’을 이룬다고 보았다. 122-125쪽 참조.



이 “순교자 서사의 구도를 채택해 여성 주인공을 비인간성 즉 내면적 무감각을 강요하는 현실에 의해 죽임 당한 자로 의미화”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한 작품으로 분석하고, 이 순교자적 서사야말로 독자와 공감하면서 박경리가 제안하는 ‘대안적인 세계관을 설득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다음으로는 후자에 해당하면서 본 연구 대상 작품을 다룬 주요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약국의 딸들』은 박경리의 여러 소설에서 드러나는 ‘비극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통영이라는 특정 장소의 ‘장소성’, 저주받은 가족사라는 ‘설화성’, 그리고 5명의 딸들이 지니는 인물구성의 특징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유수연에 의하면 “시간이 정체된 통영”은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서로 “관계맺기에 실패”하는 장소이다.<sup>16)</sup> 유수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단절”, “아버지와 딸들의 단절”을 분석해 보임으로써 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매들 간의 관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약국의 딸들』에서 5명의 딸들 사이의 관계성 및 자매애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인 『재귀열』, 『은하』, 『나비와 영경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아주 빈약한 실정이다. 〈은하〉의 경우 연재지면이 잘 못 알려져 독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가<sup>17)</sup> 2014년이 되어서야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인지 아직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으며,

16) 유수연,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제63집, 국어문화회, 2016, 257쪽.

17) 각종 1970년대 박경리 연보에서부터 〈은하〉는 『전남일보』에 연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대구일보』에 1960년 4월 1일부터 1960년 8월 10일까지 연재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재귀열』이나 『나비와 엉거궤』의 경우 역시 기존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비와 엉거궤』는 〈죄인들의 숙제〉와 동일 작품이기에 두 작품 명의 연구를 찾아 합하여도 극소수이다.

『재귀열』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홍정표에 의하면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비도덕적 주체의 파멸과 도덕적 주체의 승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 과정에서 폰타니유가 구분한 ‘신체·기질·양태·관점·리듬형상’ 등 여섯 가지 코드로 정념이 발현되고 있음을 이 작품에서 읽어내었는데, 이를 통해 정념의 기호학적 구조는 여러 텍스트를 통해 반복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up>18)</sup> 그러니까 이 연구는 ‘정념의 기호’를 확인하는 대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김윤경은 전후 발행된 여성지를 대상으로 여성독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주부생활』에 실린 여타 소설들과 함께 『재귀열』을 다루고 있다. 한국전쟁 후 생계문제와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여성들의 경험적 서사들이 공유되면서 이른바 ‘인생상담’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성지』인데, “소설 편향적 독서취향”이 두드러졌던 여성독자의 관심을 끌었던 연재소설들은 독자들의 경험을 반추해볼 수 있는 “여성의 파경과 재혼, 성적 유혹과 일탈”을 집중적으로 서사화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논픽션과 픽션의 경계가 교착화한 문학장르”를 인식시킨 것으로 보았다.<sup>19)</sup>

『재귀열』은 두 자매의 결혼과 파혼을 다루면서 이것이 전쟁 그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타 결혼 서사 소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

18)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박경리의 『재귀열』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28호, 기호학회, 2010, 312쪽.

19) 김윤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4-115쪽.

는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비극적 삶을 헤쳐 나가는 두 자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계모담'이나 '자매담'에 관한 연구는 고전소설과 신소설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계모담'은 우리나라의 구비문학만이 아니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누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도 등재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 유형이다.

이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계모형〉 소설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특히 강한 유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유형구조가 신소설에까지 계승”되었다.<sup>20)</sup> 이원수가 제시한 전형적인 ‘〈계모형〉 소설’은 다음과 같은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 A. 주인공(전처소생)이 어릴 때 생모가 세상을 떠나다.
- B. 계모가 들어오다.
- C. 계모가 주인공을 학대하고 모해하다.
- D. 주인공이 죽임을 당하다(집에서 축출되다).
- E. 계모의 모해가 폭로되고, 주인공의 억울함이 밝혀지다.
- F. 계모가 처벌되다.
- G. 주인공이 다시 화목한 가정생활을 누리다.<sup>21)</sup>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계모'라고 지칭한 계모 유형은 바로 위와 같이 '전처소생'인 주인공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계모이

20) 이원수,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권 1호, 국어교육학회, 1985, 128쪽.

21) 이원수,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권 1호, 국어교육학회, 1985, 134-135쪽.

다. 김주리에 의하면 신소설에서 계모의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난 주인공은 “교육을 통해 근대적 인물로 전신한 후 돌아와 계모에 대한 복수 또는 화해”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강점기 소설 속 계모의 서사는 신교육을 받는 “신여성의 내면”을 드러내는 서사로 활용된다.<sup>22)</sup>

본 연구에서는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부정적인 계모’와 그에 대응하는 ‘전처의 딸’ 즉 주인공 사이의 관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유형의 계모와 딸이 등장하는 작품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박경리 소설에서 계모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친자매와 이복자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자매의 관계성과 자매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계모의 대응 및 성격의 전환

#### 3-1. 거부하는 계모

연구 대상의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장편소설 『은하』에는 젊은 계모 ‘장연실’이 등장한다. 그는 ‘최진구’의 전처가 살아 있을 때부터 관계를 맺어 전처가 그 일로 심화 끝에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른 후 ‘최진구의 후처’이자 ‘인희의 계모’가 되었다. 즉 『은하』의 계모는 한 가족이 되기 이전부터 가족이 될 구성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갈등요소는 한 가족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계모와 전처 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봉합되거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전개를 바랄 수 없게 한다. 이렇듯 『은

22) 김주리, 『한국근대소설 속 스위트홈의 욕망과 계모의 표상』,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 179쪽.

하』에서는 처음부터 계모의 유입이 부조화를 일으키도록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실은 마치 백조처럼 흰 뿔 나일론 치마저고리를 입고 아직한 철 이쁜 분홍빛 양산까지 들고 있었다. 얼굴은 미인측에 들고 옷을 입은 맵시도 곱다. 그러나 어딘지 가정주부답지 못한 이상한 교태가 언동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전신은 그리 향기롭지 못했다. 요정의 접대부에서 다방 마담으로 그리고 여러 남성을 거친 후 최진구 씨의 후취로 들어앉은 것이다.<sup>23)</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품 초반부에 제시된 계모 장연실에 대한 묘사와 진술은 그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임을 독자에게 주입한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충실한 실내의 구실을 못하는”, “배운 것 없이 천하게 놀아먹던”, “집안 꼴이야 뭐가 되든 말든 몸치장과 놀기에 바빠 싸돌아다니는”, “정숙한 여자의 매력보다 탕녀의 매력을 가진”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오십이 넘은” 최진구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연실의 모략에 넘어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딸 인희를 40대 사업가의 재취로 결혼시키려 한다. 장연실은 자기 자신도 하였는데 인희는 “안 될 게 무엇이냐”라며 이 일을 밀어붙이고, “여보 영감, 당신 나보다 딸이 더 귀엽소?”라고 하면서 인희와 대결하는 삼각구도를 만들어 최진구를 뒤흔들는다. 게다가 인희의 친어머니가 조금씩 장만해 놓은 인희의 혼숫감을 자기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전처의 딸에 대하여 어머니로서의 자세는 전혀 취하지 않는다. 최진구 역시 딸 인희에게 장연실을 어머니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장연실은 계모이지만 한 가정의 어머니는 아

23) 박경리, 『은하』, 마로니에북스, 2014, 38-39쪽.

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신데렐라형 계모담의 경우 계모에게 친자녀들이 있어서 전처의 자녀를 박대한다고 할지라도 계모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위상을 가진다. 하지만 『은하』에서 장연실은 출산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최진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단 몇 년 동안 이루었던 가정의 틀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연실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아버지는 안채로 옮겨가고 인희가 사랑채로 쫓겨나와” 지내게 되었는데, 인희는 서울의 K대학에 다니고 있으므로 주로 서울에 머물러 계모와의 갈등은 고향인 D시에 내려왔을 때에만 잠시 표출된다.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계모는 결혼문제로 인희의 삶에 지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 참 따님이 안됐더군. 기왕 이렇게 될 바에야 좀 더 버텨볼 걸 그랬지. 참 아까운 따님을.....”

“아, 버티게 됐어야 말이지. 이 사장의 빛도 빛이려니와 그 여우 같은 여자가 들쭈시는데 견뎌 배기느냐 말이야.”

“재산 잃고 자식 버리구 병이 나게도 됐지 뭐야. 이 판에 호박이 굴러들 어오는 편은 어느 쪽일까? 이사장? 장연실?”

“그 여자야 뭐 벌써부터 실속은 다 차렸을 걸. 암전하게 최 사장 죽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여잔 아니지. 아무튼 늙은 영감으로부터 해방이 될 테니 오죽이나 속이 시원할까? 죽는 사람만 불쌍하지.”<sup>24)</sup>

인희가 결혼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최진구는 갑자기 쓰러져 죽음에 이르는데, 이를 두고 주위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처럼 딸 인희를 가엾

24) 박경리, 『은하』, 마로니에북스, 2014, 149쪽.

게 여긴다. '이사장'에게 얻은 빛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연실이 인희와 '이사장'과의 결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혼으로 장연실도 이득을 보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남편을 잃은 장연실은 사위인 이사장, 즉 이성태에게 접근하여 "요염하게" 웃으며 "저를 장모라 부르시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그것쯤은 이해하시겠죠?"라는 말로 이성태를 유혹하면서 여전히 은희의 '엄마'하기를 거부한다. 중국에는 장연실과 이성태의 부도덕한 육체적 관계가 소문을 타고 은희에게도 전해지는데, 이 일은 은희가 가출을 감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나를 누가 구하여 줄 수는 없을까? 나를 여기서 구해내 줄 사람은 없단 말인가?'라며 자신의 삶에 타인의 개입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던 은희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서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계모의 거듭되는 악행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아버지 최진구가 사망하고 계모 장연실이 남편 이성태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은희는 체념하였던 그 굴레로부터 탈출할 동기와 동력을 얻는다.

물론 그 이후에 친구의 동거남으로부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속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여 온전한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 다른 남성 강진호의 행동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강진호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은희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황에 체념적으로 임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변화만으로도 은희의 성장은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가 대학생임에도 신소설에서 신교육을 통해 각성하고 성취를 이루어내는 '전처의 딸'들보다도 주체성이 결여되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교육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점은 한

계로 남는다.<sup>25)</sup>

사실, “계모와 전처소생 간에는 혈연적 유대가 없기 때문에 계모의 영입은 공동사회로서의 가정을 이익사회적인 성격으로 변질시키며, 이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sup>26)</sup> 없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은하』의 계모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공동사회로서의 한 가정의 구성원 되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계모’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3-2. 거부당하는 계모

연구 대상 작품 중에서 가장 늦게 발표된 『나비와 영경귀』는 앞서 분석한 『은하』가 발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기, 『토지』 연재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전처의 딸은 희정인데, 그의 아버지 윤치열은 아내와 딸을 처음부터 책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계모형’ 소설에서 아버지와 전처 그리고 딸의 관계는 돈독하다가 계모가 새롭게 가정에 들어오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나비와 영경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전처와 딸에 ‘무책임’하였던 것으로 설정되어 기존의 ‘계모형’ 소설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예고한다.

25) 『은하』에서 대학생 은희는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닥쳐오는 불행에 체념한 채 계모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 “지금까지 불행한 가정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초월한 듯한 태도를 취하여 온 것도 따지고 보면 송건수의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데, “한줄기의 희망을 걸고 있던 송건수는 이제 영영 타인이” 되었으므로 “인희는 참말로 자기의 돌아갈 길이 없”다고 여기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 그리고 계모와 남편의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온다.

26) 이원수,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권 1호, 국어교육학회, 1985, 130쪽.



(어머니는 요조했었는데 희정이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착했어요?)

(그럼 착하고 말고, 신식공부를 못해서 네 아버지는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법도 있는 집안의 규수라서 매사에 예절이 바르구.)

(언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 막무가내인 걸요.)

(그러니까 외가에서 잘못된 거지.)

(왜요?)

(재 어머니가 죽었을 때 외가에서 데려갔지. 대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아버진 밤낮 객지 바람을 쐬구 다니니까. 생각해보면 성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할머니는 외손녀를 끼고 돌구 외숙모는 구박이니 그 틈새에서 비뚤어지기야 했겠지.)<sup>27)</sup>

위의 내용은 희정의 의붓동생이자 계모의 친딸인 희련과 고모가 나는 대화이다. 윤치열은 '부모가 정해준 조혼'의 상대였던 아내가 '신식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였어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런 아내를 '고향에 버려둔 채 '밤낮 객지 바람을 쐬구' 다닌다. 그러던 중 아내의 죽음을 맞는데, 아내가 어떤 사유로 죽게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는 '착하기만 했던'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일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

갑오개혁 이후에 남녀의 조혼을 금하였지만 1930-40년대까지도 조혼을 하는 경우는 계속되었다. 조혼은 여성의 생산력과 노동력을 고려한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나비와 엉겅퀴』에서 윤치열은 1930년대에 조혼을 하였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사랑 없이 시댁에서 일을 하는 여성, 아이를 낳는 여성으로 살아야 했다. 이러한 조혼 제도의 병폐는 신식교육을 받은 세대의 '자유연애' 풍조와 맞물려 신여

27) 박경리, 『나비와 엉겅퀴』, 지식산업사, 1989, 30쪽.

28)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 1』,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187-188쪽.

성이 '제2부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사실 '제2부인'은 가정에서의 그 위상이 첩과 다르지 않아 "아무리 연애를 추구"하여도 "개인적 향락보다 사회적 도덕적 양심을 생각한다"면 신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제2부인' 즉 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sup>29)</sup>

『나비와 영경귀』에서 윤치열은 '신식공부'를 한 여성을 원했는데, 미술교사를 그만둔 후 우연히 화방에서 만난 김향이와 결혼한다. 전처의 죽음 이후 딸 희정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이다. 그 동안에 희정은 외가에서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성격을 보인다. 희정을 불쌍히 여긴 외할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싸고돌면서' 안하무인으로 자라도록 한 것이다. 윤치열은 결혼 후에도 딸과 함께 한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젊은' '계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외할머니 때문이다.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 안 보내겠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아이 밥이나 제대로 챙겨 주겠느냐? 곱게 볼 리도 만무하고 어미 없는 것만도 가슴이 메어질 것 같은데 구박받게 할 순 없다.”<sup>30)</sup>

8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전처의 딸을 '곱게 볼 리 만무'하며 '젊은' 여성이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외할머니의 '젊은' '계모'에 대한 선입견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발견될 만큼 사회에 만연했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리에 의하면 “고전 설화에서 시작해 계모형 고소설과 신소설, 근대소설에 이르기까지 계모는 가부장의 후처로서 전실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혐의를 받으며 처벌의 대상이”<sup>31)</sup> 되어

29)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 1』,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196-197쪽.

30)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31쪽.

31) 김주리, 『한국근대소설 속 스위트홈의 욕망과 계모의 표상』, 『구보학보』 18집, 구보

왔다. 계모는 조강지처의 위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게다가 특히 '젊은 계모'는 살림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은 나이 차이로 인해 전처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결국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희정은 아버지의 가정에 합류할 수 있었다. 부부는 21세인 딸 희정을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다는 “미묘한 공범의식 같은 것”을 느끼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반복적으로 싸움을 되풀이 했는데, 전처의 딸 희정은 그런 상황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희정은 분명히 계모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즐기는 듯싶었다. 예민한 그들 부부는 희정의 악의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희정은 어미 없는 약자의 처지, 불우한 존재라는 강한 방패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 악의에 겨누어져야 할 화살은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해 온 부부 사이에서 시울을 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서로가 다 피해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해하면서도 부부의 관계는 고독하고 차갑게 식어갔던 것이다.<sup>32)</sup>

악의적으로 부모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정에 내분을 일으키는 전처의 딸 희정은 기존의 통념이라 할 수 있는 계모 가정에서 약자는 전처의 딸이라는 인식을 역으로 이용한다. 『나비와 엉겅퀴』에서는 지금까지 가정에 새로 유입된 젊은 계모를 악인으로 규정해온 선입견을 뒤집으면서 오히려 그 동안 약자로 여겨져 온 전처의 딸이 보여주는 악행을 부각한다.

무엇보다 나이 젊은 희련어머니를 괴롭게 하고 울게 하고 신경질을 부리게 한 것은 희정이 고의적으로 식모의 행세를 하는 일이었다. 남편 앞

학회, 2018, 178쪽.  
32) 박경리, 『나비와 엉겅퀴』, 지식산업사, 1989, 32-33쪽.

면 더욱 그러했고 어쩌다가 손님이라도 찾아오는 날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어차피 난 식모 같은 존재니까)

하는 투의 행동을 취하는데 이를테면 멀쩡한 식모를 놔두고 희정이 차  
심부름을 한다거나 일부러 그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지지분한 차림으로  
손님 눈에 띄게 현관 소제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희련  
어머니는

“내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고 울었다.<sup>3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희정의 약자 행세는 계모인 ‘희련어머  
니’를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받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남편 윤치열이 월북하고 희정·  
희련 두 딸과 서울에 남아 있다가 폭격을 맞아 홀로 사망하면서 ‘젊은  
계모’는 희생자가 되고 만다.

고전소설에서 신소설, 그리고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젊은 계모’는  
전처의 딸을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나비와 영경귀』에서 ‘젊은 계모’는 오히려 전처의  
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죄의식을 보이는 선한 인물로 그려진  
다. 전처의 딸은 약자로 여겨지는 사회적 통념을 악용하여 ‘젊은 계모’  
를 괴롭히면서 가정을 위태롭게 한다.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구성원  
되기를 거부하였던 계모가 등장하는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에  
는 ‘젊은 계모’가 한 가정에 정착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전처의 딸이  
존재한다.

---

33)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33쪽.

#### 4. 문제적 관계의 자매 등장

형제/자매 이야기는 〈홍부 놀부〉, 〈콩쥐 팥쥐〉처럼 동화로 각색되어 어린 시절 기억과 함께 존재하는 작품에서부터 『작은 아씨들』처럼 소설로서 혹은 영화로서 장르가 변용되어 탈바꿈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끄는 작품까지 대중들 가까이에서 늘 읽어볼 만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김만수는 “협동”하거나 “경쟁”하는 형제/자매 이야기가 “신화와 민담에서는 형제/자매의 경쟁담, 남매의 결혼담 등이 원형으로 남아” “질투와 경쟁, 복수와 애정의 삼각관계 등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담기고 결국 “약자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담”으로 결말을 맺는 것으로 보았다.<sup>34)</sup>

박경리는 소설에서 ‘약자의 성장’을 다룬 자매/형제 스토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설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어야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박경리 소설의 결말은 주인공의 죽음이거나 갈등의 소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자매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약국의 딸들』 역시 5자매 중 어느 누구의 성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한 집안의 비극적인 파멸 과정이 더 크고 중요한 서사 라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김약국의 딸들』과 함께 살펴볼 『재귀열』은 독특하게도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여주며 그 해피엔딩은 두 자매 중 더 위험에 빠지는 동생을 위하여 조력자로 나서는 언니의 활약에 의한 것이어서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자매애가 작품 표면에 나타난 작품이다.

34) 김만수, 『‘두 형제’ 이야기의 원형과 현대적 변용』, 『구보학보』 24집, 구보학회, 2020, 449-450쪽.

#### 4-1. 조력하는 자매

『재귀열』은 『여자들만의 주거』로 시작한다. 32세 김송우와 29세 김난우 자매, 그리고 55세 어머니 유성애가 사는 ‘여자들만의 주거’이다.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경부(警部) 노릇”을 하다가 “민중에 의한 타살”로 죽었기에 “난우는 자기네들 형제의 핏줄기 속에 씻지 못할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우가 송우를 향해 동병상련의 애뜻함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송우에 대해 깊은 연민과 배려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불행한 결혼을 해야 했던 그가 남편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난우는 숨을 죽인 채 깨어난 기색을 숨긴다. 송우한테 무안을 주기 싫었던 것이다. (중략) 창에서 어슴푸레한 달빛이 새어 들고 있었다. 송우는 베개 위에도 머리를 푹 파묻는다. 베개 위에 누른 송우의 입술에서는 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난우는 놀랐다. 평양서 부산에 내려왔을 때 몸을 뒤틀며 잃은 문식이를 부르고 울던 송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후 송우가 우는 것을 본 일이 없는 난우다.<sup>35)</sup>

동경 유학 시절 애인 강상훈이 학병으로 끌려가고 그의 후배인 문성환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면서 문성환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후 그를 따라 평양에서 살아야 했던 송우의 사정을 난우나 어머니는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사후퇴 때 송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피해 남쪽으로 도주하다가 아들 문식이를 잃어버리고 딸 문희만을 업은 채로 ‘유성애조산원’에 나타났던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송우를

35) 박경리, 『재귀열: 박경리 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243쪽.

배려해주고 대학을 포기한 채 자기 일을 돕는 난우에게 미안할 뿐이다. 그런데 사실 난우도 송우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들은 그것을 모른다. 애인이었던 민석구가 열렬한 공산당원이 되어 '반역자'의 딸인 자기를 버리고 다른 공산당원 여성과 떠난 후 동창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정조를 빼앗겼던 것이다. 『재귀열』에서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등장하는 서상철은 난우의 동창으로 난우를 사모하였으나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으로 정조를 빼앗”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난우를 괴롭히며 급기야 납치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송우와 어머니는 모른다. 자기의 불행을 숨기기만 하고 “행동적으로 자신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무마시키고 있는 송우를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언니를 배려해온 난우는 언니와 영민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상철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난다. 송우는 뒤늦게 하영민으로부터 난우가 왜 서울을 떠났는지 알게 되고 난우를 만나고 싶어 하는 하영민을 돕기로 한다.

송우와 영민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난우가 묵고 있는 K읍으로 내려갔다.

-(중략)-

송우는 이상한 기대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빙그레 웃는다. 뭔지 모르게 집에 빨리 들어가가지 않는 기분이기도 했다.

(마치 내 신앙감이라도 데리고 오는 것 같군. 그렇지만 영민씨는 참 좋은 분이야. 그만한 분이 어디 있을라구. 난우한테 오히려 과한 편이지.)

송우는 같이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모저모로 영민을 살펴보았으나 도무지 버릴 곳이 없는 사람 같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난우를 위하여 영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송우는 장난스런 미소를 흘리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sup>36)</sup>

36) 박경리, 『재귀열: 박경리 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330쪽.

이렇게 송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으로써 난우는 결국 영민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 약혼식을 올린다. “그애는 모습보다도 마음이 더 고와요.”라며 동생 난우에 대하여 서슴없이 말하는 송우는 동생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한편 『김약국의 딸들』에서 자매들이 한 방에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은 위에서 살펴본 『재귀열』의 방풍경과 달리 배려하거나 애뜻하기보다 경계하고 감시하는 모습이다.

용빈은 뒤뜰에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용란은 벌렁 나자빠져 있었고, 용옥은 열심히 수를 놓고 있었다.

“용옥아, 불 끄고 자자. 눈이 씨어서 잠 못 자겠다.”

용란이 짜증을 부린다. 그러나 용옥은 바늘에 수실을 꿰면서 들은 체도 안 한다.

“가씨나가 콧구멍에 소깨를 틀어박았는가배.”

후닥닥 일어나더니 전등을 탁 꺼버린다. 방문에 쳐 놓은 발 사이로 푸른 달빛이 확 밀려들어 왔다.<sup>37)</sup>

용빈은 김약국의 둘째로 스물한 살이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에 통영 집에 잠시 내려온 것이다. 김약국이 마치 장남처럼 의지하는 딸이 용빈이다. 열아홉 살 셋째 용란은 머슴 한돌과 밤마다 만나기로 하였으므로 빨리 다른 자매들이 잠들어주기를 바라는데, 넷째 용옥이 그 마음도 모르고 “열심히 수를 놓고” 있다. 지금 이 방풍경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며, 복선처럼 다섯 자매 중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용란과 용옥의 성격 특성이 아주 단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37)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북스, 2013, 112쪽.



『김약국의 딸들』에서 용란은 가장 아름다우면서 욕망에 충실하며 어떤 교육으로도 사회화하지 못한 특성을 보인다. 가정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교육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의 행실과 성품은 인간의 관습과 제도로 말미암아 더욱 비뚤어지고 파괴된다. 한밤중 무덤가 잔디 위에서 용란과 한돌이 “두 마리의 야수처럼” “두려움도 스스러움도 없이 본능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용빈과 김약국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용란은 용빈이 “일러바쳤다”고 생각한다.

한돌은 종적을 감추었다. 그 후 용란은 광망(狂妄)한 것처럼 날마다 폐약을 부렸다. 김약국의 매질도 소용없고 한실택이 가슴을 치며 너랑 나랑 그만 죽자고 서둘러도 별수 없었다. 김약국만 나가고 없으면 그는 용빈에게 덤벼들었다. 눈이 새파래지고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용빈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고 팔뚝에는 이빨 자국이 났다.<sup>38)</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용란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용빈과 상반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자매애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 다음 인용문을 보면 용란이도 용빈이에 대해 자매로서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발 생이요, 장바닥에서 군것질하지 마소. 집에서 음식 만들어 보낼 게요.”  
“장에서 사 묵는 게 맛있더라야. 눈 가는 대로 묵을 수 있고.”  
용옥은 기가 차는 모양이다.  
“그러나 저러나 흥섭이 그놈이 서울 가씨나한테 장가들었다믄?”  
“.....”  
“그놈 목이 뿌러져 죽을 기다. 우리 생이가 똬이 부족해서 그랬노, 응?”

38)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북스, 2013, 117쪽.

아 인물 잘났겠다, 공부 많이 했겠다, 마음이 넓겠다……”  
용란은 손가락을 접어가며 용빈의 장점을 열거한다.<sup>39)</sup>

용빈의 애인 흥섭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 일을 두고 용란이 용옥에게 하는 말이다. 어떤 때에는 목숨 내걸고 싸우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은 서로 자매라는 관계로 알게 모르게 끈끈한 연대감을 품고 있으며 용옥이 하는 것처럼 서로를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김약국의 딸들』에서 이렇듯 한 편이 되어주거나 서로 조력자로서 나서는 행동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그 까닭은 첫째 용숙은 이미 출가한 딸이며, 용빈은 용란의 사건이 있는 후 곧 통영을 떠나 서울에서 교사가 되고, 용혜를 서울에서 교육받도록 하며, 용란은 팔려가듯이 출가하면서 넷째 용옥만 김약국의 집에 남아 있게 되어서 관계의 밀도가 높지 않은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재귀열』의 경우처럼 한 집에서 자매가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김약국의 딸들』의 경우는 자매들이 각자 삶의 공간이 다른 상태이거나 다른 공간을 만들어가는 상태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이것이 자매간에 조력의 강도가 크게 두드러지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열일곱에 출가하여 스물넷에 과부가 된 첫째 용숙은 재물에 욕심이 많아 기울어가는 친정을 돕기는커녕 자기 잇속 차리기에 여념이 없으며 한실택이 도움 요청하였을 때에도 매몰차게 거절한다. 나중에 용숙이 친정으로 돈을 보내지만 한실택은 이때의 모욕감 때문에 돈을 돌려보낸다. 한실택이 용숙을 찾아갈 때 넷째 용옥이 동행하였는데, 『김약국의 딸들』에서 첫째 용숙과 넷째 용옥이 단 둘이서만 나눈 대화는 나오지 않는다.

39)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북스, 2013, 239쪽.

하지만 용옥은 5자매 중에서 자매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돕는 조력자이다. 용옥은 용빈을 존경하면서 용빈이 통영에 올 때 가장 반갑게 마중 나가고 함께 교회에 다니며 집안의 일들을 소상히 알려준다. 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여 아편쟁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용란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려 하며, 한실댁이 죽은 후 병든 김약국 곁에 있기를 자처한 막내 용혜를 위해 친정의 “빨래와 반찬” 등 살림살이를 맡아 한다. 하지만 용옥은 시아버지의 겁탈 시도를 피해 배를 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는다.

김약국도 죽음에 이른 후 용빈은 용혜를 데리고 서울로 떠나며, 광녀(狂女)가 된 용란은 용빈이 당분간 데리고 지내기로 한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자매들의 이야기는 성장소설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금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금기를 어긴 인간에게 내리는 주술적인 저주를 믿는 인간을 다룬 독특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하여 ‘비극적 운명론’을 담은 소설이라고 평가하는 까닭은 주술적인 저주를 이겨내기보다 김약국 가문의 가족들이 온갖 추문과 비극적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남은 4자매가 서로 조력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숙은 재력으로 용빈은 지력으로 동생들을 돌보기로 하면서 한바탕 휘몰아친 저주스러운 불길한 일들을 뒤로 한 채 일말의 희망은 남게 되었다.

#### 4-2. 결박하는 자매

자매(혹은 형제)가 서로 조력자나 협력자가 되어 가족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프로타고니스트-안타고니스트’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갈등관계가 고조되었다가 해결이나 파국에 이르면서 다양한 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대결과 공존의 관계가 동시에 존

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은 자매의 관계가 박경리의 『나비와 엉겅퀴』에 밀도 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비와 엉겅퀴』는 일종의 계모형 소설이며, 박경리 장편소설에서 이복자매가 소설의 중심 서사에 놓여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경향신문』에 연재될 당시 작품 제목은 〈죄인들의 숙제〉였으나 1978년 범우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올 때 『나비와 엉겅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소설의 첫 장 소재목이 바로 『엉겅퀴꽃』이며 ‘엉겅퀴꽃’은 이복자매의 언니를 비유하고 있음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동생 윤희련은 열두 살이나 많은 언니 윤희정을 닮은 ‘질기고 강인한’ 엉겅퀴꽃을 싫어한다.

그것은 무서운 대결이었다.

팔 하나가 없는 빈소매를 너풀거리며 상처투성이인 얼굴,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희련이는 다가왔다. 오른편 성한 손은 아령을 들고 있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요!”

희련이는 두 손으로 제 머리를 감싸안고 달아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년아! 니 죽고 나 죽자!”

“제발 언니나 죽으세요!”

달아나면서 희련이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년아! 이 배은망덕한 년아! 네년이 그러고도 혼자 행복할 것 같으냐!”

희련은 달아나다 그 말에 우뚝 멈추어 섰다.<sup>40)</sup>

위의 장면은 희련이가 종종 꾸는 악몽이다. “증오가 전신을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버릴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희련은 언니 희정이가 자신을 “꼭두각시”나 “부속물”로 여기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다. 아버지는 월

40) 박경리, 『나비와 엉겅퀴』, 지식산업사, 1989, 8쪽.

복을 하고 폭격에 어머니마저 사망한 후 11살 먹은 희련이를 보호자로서 보살핀 것은 23세의 희정이다. 그런데 희정은 폭격으로 한쪽 팔을 잃고 얼굴에 파편까지 튀어 상처가 크게 남았고, 희련은 상한 곳 없이 무사했는데 희정은 이러한 동생 희련을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다. “희정에게 어린 동생이 남겨졌다는 사실은 삶의 통로를 열어 준 것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서술되어 있는 까닭은 어릴 적 희정이 보여준 하나의 일화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사실 불구가 된 몸으로 부모 없이 어린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삶의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기에는 이해 불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희련이 “두 살인가 세 살 적의 일”인데, 희정은 아직 혼자 층계를 내려오지 못하는 희련을 이층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혼자만 내려와서 몸을 숨긴 채 “아이의 동정을 살피는 그 못된 장난”을 반복한다.

아이는 둘레둘레 살피다가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느끼자  
 “언니야! 언니야!”  
 하고 불렀다.  
 희정은 자기를 찾는 아이 부르짖음에 희열을 느꼈다. 응, 나 여기 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그 순간만은 희정이 외롭지 않았다.<sup>41)</sup>

외할머니와 지내다 간혹 서울에 올라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때 희정은 외로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못된 장난’을 하곤 했다. 희련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절대적인 자기를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공포로 울부짖는 희련을 감싸안으며 “피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희정에게는 “가장 보람 있고 그리워지는 세월”이었다.

41)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37쪽. 박경리의 단편 〈해동여관의 미나〉에도 이와 동일한 일화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덕분에 희련에게 언제든지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희련은 이러한 관계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언니의 희생으로 살아남고 공부까지 하여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음에도 삶에 대한 의욕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희련은 언니가 중매해주고 “졸라뻘”기에 고등학교 미술교사이자 무명화가인 장기수와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계기로 희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희정이 강력하게 함께 살 것을 주장했고 이걸 “마치 어떤 미술과도 같은 것이어서 희련을 엮어매었”으며, 장기수도 늘 하숙생활을 해왔던 터라 같이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불구자로서 결혼할 희망이 없는” “희정의 존재는 희련을 우울하게” 하였고 자기 자신의 ‘정상 생활’은 불구의 언니로 인해 늘 죄의식을 갖게 했다. 결국 희련은 장기수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된다.

“너도 속이 상하겠지만 기왕지사 어떡허니? 운수가 불길해 그랬던 걸. 이제부터 마음잡고 나도 정신차리마.”

희정은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눈물을 닦는다.

“일을 다시 해야 할까, 언니?”

희련은 희정의 한 말과는 관계없이 불쑥 물었다.

“그야 뭐…… 얼마나 해서 집문서 찾아내겠니?”

“집 있음 뭘 해요.”

희련이 중얼거렸다.

“뭘 하다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한테 이 집 밖에 더 있지.”

희련은 희미하게 웃었다.

“너만 마음 돌리면 되는 일 아니냐. 네가 혼자 있으니까 넘보고 장가놈도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야. 아 사람이야 인물 좋고 능력 있고 너만 옹한다면 이혼하겠단잖아. 다 너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빛도 안아주는

거구.”<sup>42)</sup>

희정이 사기를 당하여 큰 빚을 지게 되면서 희련이 친모와 행복하게 살았던 집을 팔아 빚을 갚기로 한다. 희정은 이 와중에 희련이 돈 많은 유부남과 결혼해줄 것을 중용한다. “너만 응한다면 이혼하겠다”고 하니 그와 결혼하여 빚을 대신 갚아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희정의 노력은 희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희련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지금 희련은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진 후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던 중 집까지 잃게 된 것이다.

희련이 엄마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희정은 잠시 절에서 지내기로 한다. 중이 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남기고 희정이 떠난 후 희련은 아무도 모르게 자살을 선택한다. 희정이 강력하게 희련을 숙박함으로써 자매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목숨을 이어가는 생존이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희련이 희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감을 느껴본 것은 강은식과 사랑하던 순간이었는데, 소문과 오해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희련은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희정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이것으로 희정과 지속해야 하는 ‘생존의 삶’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잠시 중단되었을 뿐임을 희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매들이 각각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삶이 가능할 때라야 필요에 따라 협력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희련과 희정은 독립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련이 성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또 이 자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으로 두 인물 모두 위기에 놓이는 위험하고 불

42)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457쪽.

안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5. 나오는 말

박경리는 『토지』를 발표하기 몇 해 전 “이제부터 나는 써야 할 작품이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습작이라 한다. 그것을 쓰기 위해 아마도 나는 이삼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보다.”<sup>43)</sup>라고 하였다. 문단 데뷔 후 10여 년이 흘러가자 작가는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습작이라 할 만큼 더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작가의 의지가 그 동안에 해오던 집필에 영향을 미쳐 대작 『토지』 창작을 전후로 한 일련의 장편소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장편 『재귀열』, 『은하』, 『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나비와 영경귀』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토지』 연재의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나비와 영경귀』에서 그 변화가 집약적으로 발견되었다. 여기서 변화란 ‘계모’와 ‘자매’ 유형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관계와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서부터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소설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어온 ‘전처의 딸’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계모’가 박경리의 장편소설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지만, 박경리는 『나비와 영경귀』에서 ‘젊은 계모를 괴롭히는 전처의 딸’을 등장시키고 ‘착한 희생자 계모’를

---

43) 박경리, 『Q씨에게』, 현암사, 1968, 276쪽.



형상화하여 이전의 패턴을 깨뜨렸다. 또한 박경리의 소설에서 '자매'란 가족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여 그들의 관계는 어려움에 처한 자매를 조력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나비와 영경귀』에서는 모든 갈등이 집약된 문제적 관계의 자매를 등장시켰다. 특히 이들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이복자매로 설정되어 자매와 모녀의 관계성이 뒤섞인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기적인 생존 방편의 관계로 드러남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작 『토지』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과 인물 관계의 설정으로 이어진다. 『토지』에는 기존 가정에 유입되는 새로운 아내가 등장하는데 계모 유형의 변형이다. 그 중 한 인물인 별당아씨는 최치수의 두 번째 부인으로 최참판가에 들어오는데, 요절한 전처와 금슬이 좋았던 최치수는 별당아씨를 멀리한다. 전처의 소생이 없고 서희는 별당아씨가 낳은 딸이지만, 이것은 한 가정에 새로 유입되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계모 소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치수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별당아씨는 머슴과도 같았던 구천이와 야반도주를 하여 함께 지내다가 산에서 요절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별당아씨와 구천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짐으로써 '젊은 두 번째 아내'의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한다.

한편, 『토지』에는 형제가 자매보다 월등히 많고, 이들 사이의 갈등 서사는 많지 않으며 '조용하-조찬하' 형제의 갈등이 대표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토지』에는 이부남매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임이와 홍이는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남매인데, 임이의 아버지는 최치수 살인 사건으로 처형을 당한 칠성이고 홍이의 아버지는 평사리의 대표적인 농민 이용이다. 이들이 남매로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이용의 죽음 이후이다.

이처럼 집필 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집필 후기에 대작을 설계하고 창작하였던 박경리의 경우 장·단편 소설에 나타나는 변화가 최종의 작품 『토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Q씨에게』, 현암사, 1968.  
\_\_\_\_\_, 『재귀열: 박경리 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_\_\_\_\_, 『원주통신』, 지식산업사, 1985.  
\_\_\_\_\_,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_\_\_\_\_,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은하』, 마로니에북스, 2014.

### 2. 논문과 단행본

- 김만수, 「'두 형제' 이야기의 원형과 현대적 변용」, 『구보학보』 24집, 구보학회, 2020, 443-466쪽.  
김미현, 「여성가족로망스의 교차성 연구-김이설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12집, 한국언어문화회, 2020, 145-174쪽.  
김윤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의 인물 정체성과 현실 대응 양상의 관계-『영원한 반려』, 『나비와 영경귀』, 『단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1호, 한국현대문학회, 2007, 301-353쪽.  
김주리, 「한국근대소설 속 스위트홈의 욕망과 계모의 표상」,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2018, 175-211쪽.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유수연,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63집, 국어문화회, 2016, 257-281쪽.  
이원수,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권 1호, 국어교육학회, 1985, 127-150쪽.  
장시광,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작가의식」, 『국문학연구』 7호, 국문학회, 2002, 291-323쪽.  
조지혜,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한점돌,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샤머니즘」, 『현대문학이론연구』 4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5-24쪽.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박경리의 『재귀열』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8호, 기호학회, 2010, 283-319쪽.

## Abstract

Type Variations of 'Stepmother' and 'Sister' in the Novels of Park Kyong-Ni  
and Their Meanings

-Focused on *Jaegwiyeol*, *Eunha*, *Kimyakgukkeue Ddaldeul*,

*Nabiwa Unggungkwi*

Cho, Yun-A(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ype variations of the 'stepmother' and 'sister' in the full-length novels of Park Kyong-Ni and attempted to point out their meanings. The pattern of "negative stepmother" that appeared in classical and new novels also appeared repeatedly in Park Kyong-Ni's full-length novels and this was because a change took place in later full-length novels.

Novels analyzed with focus were *Jaegwiyeol*(1959), *Eunha*(1960), *Kimyakgukkeue Ddaldeul*(1962), and *Nabiwa Unggungkwi*(1969). The stepmother that appears in *Eunha* is a type that appears often in the classic and new novels of Korea. While the stepmother newly gained the role and status of 'mother', she forms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daughter of the former wife while still refusing to be a member of the family and she puts the former wife's daughter in critical situations by committing misdeeds. However, the young stepmother in *Nabiwa Unggungkwi* actually becomes a victim to the malicious and morbid harassment of the former wife's daughter. This stepmother is a good-natured figure who shows a sense of guilt for failing to fulfill her responsibilities of upbringing and education and she eventually dies as a victim to a bomb during the war, leaving her young biological daughter behind. On one hand, the sisters in *Jaegwiyeol* and *Kimyakgukkeue Ddaldeul* are not strongly bonded but when one is caught in a crisis, the other one claims to be of help. Unlike this, the sisters in *Nabiwa Unggungkwi* have a bond that cannot be broken. They are half-sisters that bind each other so severely that they hinder each other's growth and they eventually end up disintegrating. Through such analyses, it is shown that issues of human nature are dealt with more acutely by breaking the 'young stepmother' away from convention by placing her in the position

of the victim to amplify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sisters, unlike in previous pieces.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looked into how previously repetitive character type changes appeared in full-length novels in conditions that clearly display the writer's determination to leave behind a masterpiece.

(Keywords: Park Kyong-Ni's novels, stepmother, sisters, half-sisters, former wife's daughter, victim, pattern, type variations)

논문투고일 : 2020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4일

수정완료일 : 2020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13일